

현대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외적 특성에 관한 연구

The Role of Exterior Features of Belts in Modern Women's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Sun Young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현대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외적 특성 |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roles that the exterior features of belts play in modern women's fashion. Providing a new prospective on belt expression could be useful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belts with newer and more unique fashion designs. This study included related studies, fashion magazines and collections produced both in Korea and abroad since 2000.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 belt can be used to stress femininity. For example wearing a broad belt rather than a thin belt emphasizes the waist, breasts or hips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belt, whereas simply Wearing a belt loosely on a tight or see-through dress can also emphasize femininity. 2. A belt can be used as a design element of a dress. The basic elements of a belt, such as leather used in combination with various colors, various manufacturing methods, and ornate buckle ornaments can produce elaborate decorative effects. However, when a belt is made from materials other than leather, the belt can have an ornamental quality on an achromatic dress. Finally, designing belts to be worn in non-conventional manners, such as girding or tying them, or wearing several belts on the arms, legs, shoulders and waist can result in new and expressive styles.

주제어(Key Words): 벨트(belt), 여성성(femininity), 장식성(ornament), 연출의 다양성(expression varieties)

I. 서론

인간의 미적 감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발전하며 이 감각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액세서리는 패션을 마무리하는 조형물로서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는 패션과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액세서리란 복장을 갖추기 위한 부속품 또는 보조품의 의미로 각 신체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 장신구는 그 자체만으로 장식과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여 한 시대와 문화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대의 장신구는 패션과 어떻게 코디네이트 되는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이현숙, 이정숙, 2002: 3). 일반적인 패션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서 액세서리는 모자, 가방, 구두, 벨트, 양말이나 스타킹, 장갑, 스카프, 단추 등이 있으며 의복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 반지, 팔찌,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펜던트 등의 장신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이경손, 김희섭, 1998: 166).

이 중에서도 특히 벨트는 현대패션에서 유행경향에 따라 장식뿐만 아니라 굵기와 넓이의 변화, 그리고 연출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어 빼놓아서는 안 되는 장식적 패션액세서리의 하나이다. 그러나 벨트에 관한 선행 연구(서동륜, 1980; 김소영, 1998)는 단지 코디네이션과 관련되거나 장신구로서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외적특성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벨트 디자인과 연출방법을 통해 벨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벨트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전개가 가능함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을 통해 벨트의 변천과정과 종류를 알아보고, 패션관련 작품집과 국내외 패션잡지 등을 이용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여성 패션에서 벨트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벨트의 변천과정

벨트(Belt)란 프랑스어로 '생튀르(Ceinture)' 라고도 하며, 허리에 매는 끈 또는 띠 형태의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류를 꼭 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의복에 색상과 장식 또는 강조를 위해 사용된다. 벨트의 어원은 라틴어 'balte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깨에 걸치는 끈을 의미하는데

(<http://www.daum.net/dic100>)벨트의 재료는 가죽·직물·편물·금속·플라스틱 등이며 색깔·형태·디자인 등이 다양하다.

벨트의 기원은 원래 군인들이 군복을 바로 잡거나 무기를 휴대하기 위하여 허리둘레에 입던 군용거들 혹은 밴드에서 찾을 수 있지만(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 2002: 204),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허리에 둘러 맨 허리띠에서부터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집트 고왕국 시대에 착용 했던 '셴티(Shenti)'는 한 장의 직물로 만들었고 벨트로 고정시킨 것이며, 이집트의 왕은 로인 스킷트를 다채로운 허리끈 장식과 함께 칼라시리즈 속에 그대로 입었다(그림 1).

또 페르시아에서는 캔디스(Candys)를 관복으로 채택했는데 캔디스는 풍성한 로브로 길이가 길고 소매와 도련이 어깨에서부터 넓게 퍼져 있으며 T자형으로 목둘레를 파고 팔꿈치에서 소매 끝까지 다른 천을 대어 주름을 잡아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허리띠를 둘러서 양쪽에서만 주름이 지도록 착용했다(정홍숙, 1997: 37).

크리트인들은 남녀 모두 허리를 극도로 가늘게 조이기 위해 코르셋 벨트를 사용했다(그림 2). 코르셋 벨트는 가죽이나 금, 은,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금속으로 만든 벨트에는 장미꽃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디자인한 금속조각판을 연결해 만든 것도 있었으며, 벨트를 착용했을 때 피부와의 접촉으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벨트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었다(정홍숙, 1997: 52).

그리스의 필수 의복이었던 키톤(Chiton)은 단순한 직사각형의 옷감을 몸에 둘러 주름이 생기게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착용하였는데 한두 개의 끈이나 벨트를 허리에 감아 입기도 하여 주름과 벨트의 착용법이 중요한 장식적 요소로 이용되었다(James, 2005: 28). 또 로마 제정시대의 튜닉은 두 장의 천을 모아서 꿰맨 것으로 머리 위에서부터 입었으며 벨트 같은 것으로 허리를 고정해 주름이 생기게 했고, 이오닉 키톤(Ionic Chiton)은 여러 개의 단추나 브로치로 도릭 키톤(Doric chiton)의 실루엣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하이웨이스트나 웨이스트 부분을 끈으로 돌리고 다시 X, H자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묶어 연출하기도 했다(정홍숙, 1997: 66)(그림 3). 또 여성들은 스톨라 위에 넓고 편평한 벨트를 허리에 하였고, 가는 벨트를 가슴 아래에 매기도 하였다(김소영, 1998).

중세 초기에 이르러 남자들은 바지의 허리에 가죽벨트나 화려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맸으며 여기에 칼이나 화살 등 전쟁이나 수렵에 필요한 물건들을 차고 다녔다. 특히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장신구는 블리오(Bliaud)의 허리와 아랫배를 매주는 허리끈으로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것은 상당한 고



〈그림 1〉 이집트시대 복식
(세계패션사 1, p. 44)



〈그림 2〉 크레타의 복식
(20,000years of fashion, p. 81)



〈그림 3〉 이오닉기톤
(서양복식문화사, p. 65)



〈그림 4〉 르네상스복식
(20,000years of fashion, p. 245)



〈그림 5〉 바로크 복식
(서양복식문화사, p. 223)

가의 품목이었으며, 남자들은 십자군 전쟁에 나갈 때 성직자들에게서 축성 받은 십자가를 보관하기 위해 앨모너(Almoner)라는 주머니를 허리끈에 달고 다녔는데 후에 여자 핸드백의 모체가 되었다(정홍숙, 1997: 124-137). 중세말기에 이르러 코타르디(Cotehardie)에는 아랫배와 힙에 벨트를 매기도 했는데 이 때 벨트는 호화로운 장식을 하여 재산의 일부가 될 만큼 고가의 품목이었다. 중세시대에 벨트, 여밈장치, 체인, 장식용 칼 등 장식품들은 금이나 에나멜로 제작되었으며, 그 위에 다양한 귀금속, 천연진주, 유리구슬 등으로 상감하여 장식하였다(김영인 외 7인, 2002: 204).

르네상스시기에 남성들은 허리 또는 힙에 꼭 끼는 벨트를 매어 허리를 가늘게 나타냈고, 여성들은 초기에 우펠랑드(Houppelande)의 풍성하고 길이가 긴 옷의 가슴 밑으로 벨트를 꼭 조이게 매었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넓은 가죽 벨트에 보석이 박힌 버클로 고정시켜 의복의 위엄을 나타냈으며 벨트에는 술이 달린 주머니, 부채, 열쇠, 거울, 향료 등을 매달았다(서동륜, 1980)〈그림 4〉.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중세이후 이때까지 푸르푸앵에 달린 끈을 바지허리의 구멍에 꿰어서 연결했으나 푸르푸앵(Pourpoint)이 짧아지자 끈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벨트로 바지를 허리에 고정시켰다(정홍숙, 1997: 223). 1682년 이후 남성복에서 벨트는 어깨벨트나 수대로 대체되었으며 여기에 군인들은 물건을 넣는 주머니와 칼을 달았고, 여성들은 부채나 거울을 달기 위하여 허리에 좁은 줄이나 좁은 벨트를 매었다(김영선, 1982)〈그림 5〉.

로코코 시대에는 남성상의가 프룩코트(Frac coat)의 형태로 바뀌고 하의도 바지로 변함에 따라 벨트는 장식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으로 변하였으며, 남자 액세서리 중 머프가 유행했는데 머프를 허리벨트에 달고 다니거나 시계 줄을 벨트에 매달고 다니기도 했다. 여성복에서는 벨트 대신 부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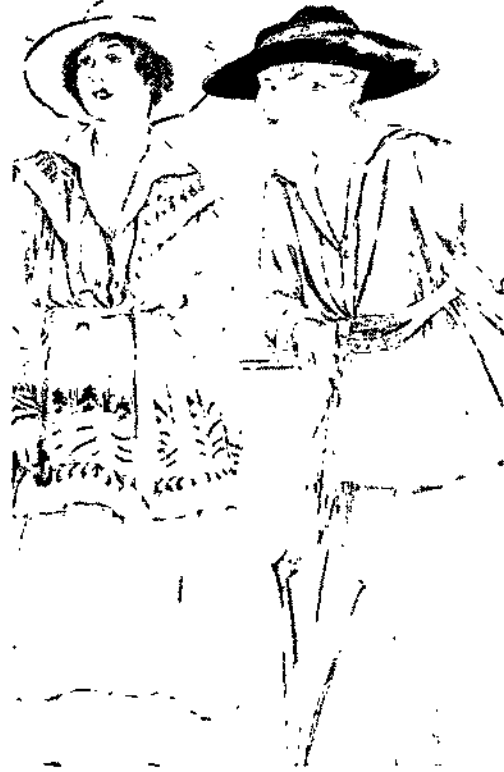
운 원단으로 만든 새시의 사용이 많아졌다(서동륜, 1980)〈그림 6〉.

이후 근대에 이르러 벨트는 남성복에는 주로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여성복에는 보통 드레스나 스커트와 같은 직물로 만들어졌고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아르누보의 영향이후 장식적인 버클을 가진 벨트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김영인 외 7인, 2002: 204).

그러나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복에 있어서도 실용성이 요구되었고 1915년 많은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 군복의 영향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데이 웨어에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 허리가 약간 들어간 테일러드 재킷과 슈트가 주요한 여성복으로 발전하였는데 재킷은 품이 넓고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며 허리 위에 폭이 넓은 벨트를 느슨하게 맸다(Valerie & Amy, 2003: 54)〈그림 7〉. 1920년대에는 허리선이 아래로 내려가자 벨트가 사라졌으나, 1930년대 패션의 초점이 허리에 오면서 벨트가 중요한 액세서리가 되었는데 옷과 어울리도록 벨트를 함께 제작하기도 했으며, 보석이 박힌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적인 합금장치나 버클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모든 면에서 절약정신이 요구되었고 1942년 미국도 꼭 필요치 않은 디테일을 금하고 일부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제한령L-85'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벨트의 넓이는 5cm를 초과할 수 없었다(Valerie & Amy, 2003: 130). 전쟁 후에는 뉴욕의 유행으로 인하여 가는 허리와 부푼 엉덩이가 강조되면서 벨트도 현저하게 넓어졌으며, 1950년대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슬로건으로 등장하면서 각 앙상블에 적절한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 되었는데, 가느다란 허리선을 강조하기 위해 벨트는 필수적이었으며 넓은 고무벨트에 잠금장치를 단 것부터 송아지 새시벨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벨트가 있었다(Valerie & Amy, 2003: 170)〈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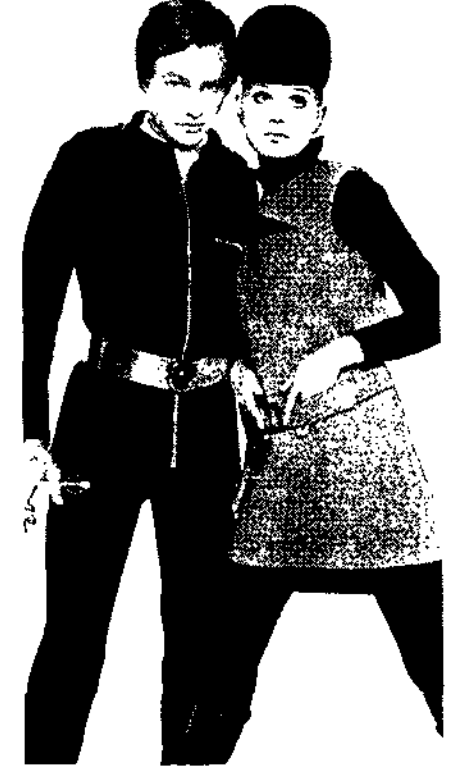
〈그림 6〉 로코코시대 복식 (서양복식문화사, p. 249)



〈그림 7〉 Chanel, 1910년대 (20세기 패션, p. 59)



〈그림 8〉 Christian Dior, 1950년대 (서양복식문화사, p. 385)



〈그림 9〉 Pierre Cardin, 1967 (20,000years of fashion, p.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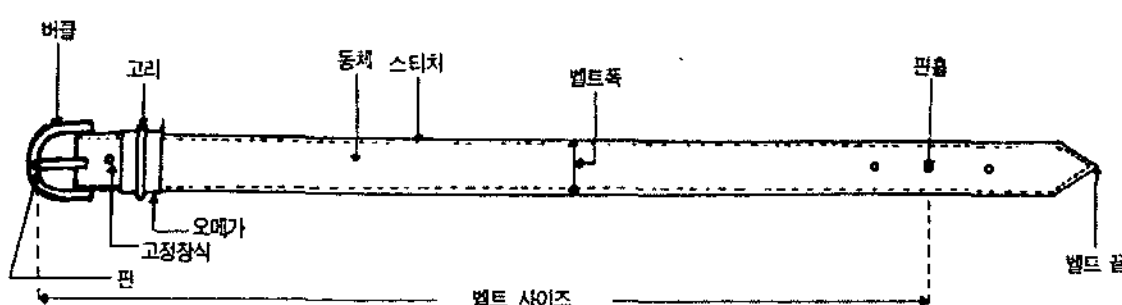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유행으로 길어진 상의 위에 금속 체인벨트나 가죽 벨트 등을 다양하게 사용했고(그림 9), 이후 현대패션에 가죽, 플라스틱, 길트 체인, 고무, 스웨이드 등 다양한 재료, 색상 그리고 형태의 벨트디자인이 이용되었고 허리선의 위치와 의복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2. 벨트의 구조와 종류

벨트는 허리를 조이는 기능 외에도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소품으로 색상, 소재, 표면감 뿐 아니라 버클디자인,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벨트의 구조는 〈그림 10〉(라사라패션정보, 2000: 88)과 같으며, 〈표 1〉에 다양한 벨트의 종류를 정리하였다(라사라패션정보, 2000: 88-91; 라사라교육개발원, 1992; 이경순, 김희섭, 1998: 190; 진경옥, 2004: 165).

Ⅲ. 현대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외적 특성

현대패션은 스타일이나 소재, 표현방법, 기법 등 모든 측면에 있어 실험성과 혁신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패



〈그림 10〉 벨트의 구조와 세부 명칭

션이 기존의 것들에서 이미 한계를 보이고 보다 독창적인 면을 추구함과 동시에 개인의 개성과 취향이 두드러지는 인디비주얼리즘(Individualism)과 토탈 코디네이션의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의상 외에 벨트와 같은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는 것 또한 이러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벨트는 의복을 고정시키는 필수품으로서 의복을 바로잡는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실용성과 함께 패션의 흐름에 따라 장식성이 가미되어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유행을 주도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지금까지의 단순한 액세서리의 위치를 벗어나서 의복과 마찬가지로 입는다는 개념으로 착용하여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종류와 연출방법을 분석한 결과 그 특성을 여성성의 강조, 장식적 요소로 활용, 연출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1. 여성성의 강조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가꾸고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신체에 대한 가치관, 미적 감각, 인지, 사고 방식 등 신체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이상적 신체형은 각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여성들이 동일시 하고자 했던 문화를 표현해 왔다(김소영, 양숙희, 2002).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여성답다는 의미 역시 사회,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 인체의 강조 또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미에 있어 부드러움, 여성의 곡선적인 움직임과 같은 여성적 특질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고현진, 김민자, 2004).

〈표 1〉 벨트의 종류

구분	형태		구분	형태	
스트레이트 벨트 (Straight belt)	허리선 위치에 매는 기본적인 형태의 끈은 벨트.		내로우 벨트 (Narrow belt)	1~2cm 정도의 폭이 좁은 벨트.	
더블 벨트 (Double belt)	폭 넓은 벨트 위에 가는 끈을 두 줄로 붙여서 매는 벨트 형태로 두 줄을 사용한 벨트의 새로운 착용법도 가리킨다.		로 슬링 벨트 (Low Slung Belt)	허리에 걸리는 것처럼 낮은 위치에 헐렁하게 걸쳐 착용하는 벨트 형태.	
빅 벨트 (Big belt)	매우 큰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에 많이 사용되며 10cm 이상 폭을 가지고 소재도 라메나 에나멜 등 다양하다.		새시 벨트 (Sash Belt)	새시는 장식이 있는 띠 모양의 천을 말하며 부드러운 천으로 주름을 잡거나 허리에 여러 겹으로 두르기도 하며 버클로 고정시키기도 한다.	
메탈 벨트 (Metal belt)	금속제 벨트의 총칭으로 매우 장식적인 액세서리로 사용된다.		타이 벨트 (Tie belt)	버클이나 고리로 여미지 않고 매는 벨트.	
샘 브라운 벨트 (Sam brown belt)	오른쪽 어깨에서 좁다란 가죽 띠가 내려져 있는 폭이 넓은 가죽제의 허리띠 발명자인 영국의 사무엘 브라운 경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코르셋 벨트 (Corset belt)	몸통을 꼭 조이기 위한 벨트로 허리를 꼭 죄는 폭이 넓은 벨트로 앞 중앙에서 끈으로 매게 되어 있다. 속옷 종류의 하나인 코슬릿(Corselet)과 비슷하다하여 붙여졌다.	
파우치 벨트 (Pouch belt)	벨트에 작은 주머니를 끼워 매는 형태.		레터드 버클벨트 (Lettered buckle belt)	디자이너의 이니셜 등을 디자인 화한 버클을 결들인 벨트.	
하프 벨트 (Half belt)	허리에 반쯤만 만들어진 벨트로 대개 같은 천으로 만들어서 달려 있다.		웨빙 벨트 (Webbing belt)	웨빙은 '벨트 따위로 쓰이는 튼튼한 띠'라는 뜻으로 가죽제품이 아닌 면, 견, 고무 등으로 만들어진 끈으로 된 벨트.	
커브 벨트 (Curve belt)	자기 허리선 위치와 허리선 아래 골반 뼈에 연결되는 벨트로 스트레이트 벨트와 함께 비교적 단단한 소재로 만든 것이 많다.		커머번드 (Cummerbund)	폭이 넓고 몸에 꼭 맞는 새시 벨트의 한 종류이며 주로 남자의 예복 턱시도에 사용되나 여성복에도 많이 응용된다.	
스카프 벨트 (Scarf belt)	스카프를 벨트로 응용한 것이다.		체인 벨트 (Chain belt)	금속 고리를 이어서 만든 벨트를 말하며 금속이외에 여러 가닥의 가죽이나 여러 가닥의 끈으로 체인을 만든 것도 포함한다.	
신치 벨트 (Cinch belt)	신치는 '안장 띠, 꼭쥐다. 붙잡다'란 뜻으로 말의 복대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온 말이다. 네모나 원형의 커다란 신치 버클이 달린 폭이 넓고 튼튼한 벨트 형태이다.		서스펜더 벨트 (Suspender belt)	벨트에 어깨에 매는 서스펜더가 달려있는 것을 말한다.	



〈그림 11〉 Alexander McQueen, 2006S/S (Gap, Vol.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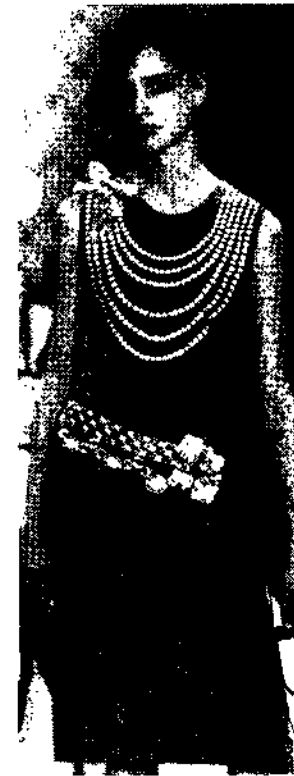
〈그림 12〉 Celine, 2002S/S (Vogue, 20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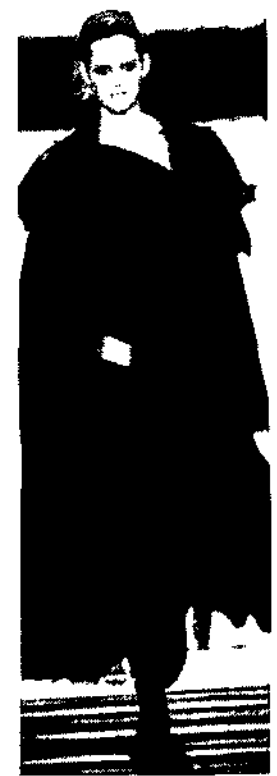
〈그림 13〉 Thierry Mugler, 2000F/W (Vogue, 1999.9)



〈그림 14〉 Dolce & Gabbana, 2007S/S (Gap, Vol.73)



〈그림 15〉 Cacharel, 2001F/W (Vogue, 2001.5)



〈그림 16〉 Donna Karen, 2001F/W (Vogue, 2001.5)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명확한 허리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 가는 허리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정착되었고(오희선, 1997: 95), 벨트는 이러한 남성의 신체가 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들만이 갖는 가는 허리를 강조시킴으로서 여성인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는 여성성의 강조를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폭 넓은 벨트의 착용으로 가는 허리를 강조하거나, 〈그림 12〉와 같이 비치는 레이스 소재의 원피스 위에 로슬링 벨트를 걸쳐 매어 허리를 줄라매지 않고 허리부분을 내비침으로써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코르셋과 같은 벨트로 허리를 가늘게 조이고 동시에 둥근 힙 부분을 강조한 〈그림 13〉은 여성인체를 구속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나 가는 허리와 대조를 이루는 힙 부분은 풍만함과 다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여성적인 매력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4〉 역시 폭이 넓은 더블 벨트를 가슴 바로 아래에 착용하여 풍만한 가슴을 강조하고 다리 곡선을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벨트의 위치는 인체의 어느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나 실루엣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데, 현대패션에서 벨트가 착용된 부분은 의상전면, 상의, 하의, 뒷부분, 디자인 선, 디테일의 한 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의상의 포인트를 나타낸다. 특히 폭이 넓은 벨트로 허리를 강조하거나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가슴이나 힙을 강조하기도 하고, 몸매를 드러내는 타이트한 의상이나 시스루 소재의 의상에 벨트를 느슨하게 매어 연출하는 방법 등 벨트는 여성인체의 곡선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있어 남성과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하

는 대신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성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를 적극 소비하는 '알파 걸'이 소비시장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아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신인류로 주목받고 있는(여풍당당 알파 걸을 잡아라, 2007) 가운데, 이러한 여성성의 강조는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이미지를 재인식하는 주체적인 표현으로써 과거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여성 스스로가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주체적인 현상으로 의상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 의한 연출을 통해서도 보다 강한 여성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식적 요소로 활용

장식은 라틴어 'ornare' 즉 '장식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장식한다는 것은 매력적이게 하는 것 혹은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근본목적은 몸을 아름답게 꾸며서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동시에 자신의 미적만족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장식을 통해 추구되는 미적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만든다(채선미, 2006). 미의 추구를 위한 복식이나 기타 장신구에 있어서의 장식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격이나 사상 표현의 한 수단이 되며 그 시대의 사조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전통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개성에 따른 창의성을 나타내게 되어(김선영, 2005)인간 자신과 생활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된다.

벨트는 평평한 끈의 형태나 대의 형태로 의복의 허리를 여미거나 의복이 흘러내리지 않게 복장을 정리하는(신효정, 2004: 175)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패션의 흐름에 따라 실루엣을 살리고 화려한 장식의 효과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림 17〉
Versace,
2003S/S
(Fashion
insight,2003)



〈그림 18〉
Peter Som,
2003S/S
(Vogue,
2002.12)



〈그림 19〉
Jeremy Scott,
2003F/W
(Harper's
Bazaar, 20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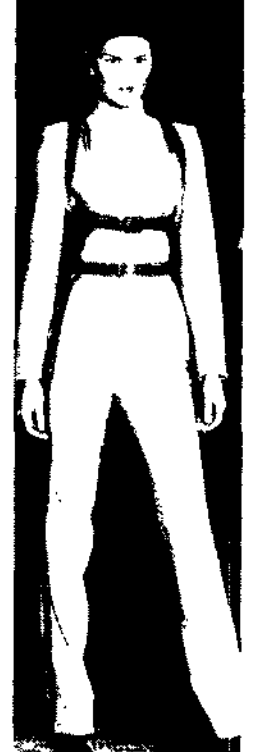
〈그림 20〉
Gucci,
2007S/S
(Gap, Vol.73)



〈그림 21〉
Karl Lagerfeld,
2004F/W
(Vogue,
2004.5)



〈그림 22〉
Victor&Rolf
2002F/W
(Vogue,
2002.5)



〈그림 23〉
Alexander
Mcqueen,
2003S/S
(Vogue, 2002.12)

과거에 벨트의 장식을 통하여 개인의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부나 신분 상징을 위한 장식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된 것이다. 벨트의 재료는 가죽, 금속, 플라스틱, 원단 등 다양한 소재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여러 형태의 버클을 사용하기도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장식성을 갖게 된다.

〈그림 15〉는 심플한 의상에 화려한 보석 장식이 된 벨트로 연출한 것이고, 〈그림 16〉은 블랙의상에 단순한 금색 로 슬링 벨트만으로 모던함을 나타내 전체적인 의상의 포인트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림 17〉 역시 시스루 소재의 원피스에 화려한 색상으로 자수 장식된 힙본 벨트를 매어 에스닉 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 〈그림 18〉은 화려한 비즈와 술 장식으로 이루어진 벨트를 착용하여 마치 레이어드 된 스커트와 같이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19〉는 헤어장식과 동일한 여러 겹의 진주 체인을 늘어뜨려 장식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연출은 벨트를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닌 하나의 의상을 착용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즉 벨트의 주 소재인 가죽이 외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이나 무채색의 의상에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여 의상 전체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

또 벨트에 사용되는 버클 역시 장식적 요소로 활용되어 〈그림 20〉과 같이 여러 개의 버클을 사용한 더블벨트로 포인트를 주거나, 〈그림 21〉과 같이 디자이너 라벨이나 브랜드 로고를 버클에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인지도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로 장식하기도 했다.

〈그림 22〉는 블랙의상에 선명한 푸른색 파우치 벨트로 장식한 것으로 색상 대비만으로도 강한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벨트에 부착된 여러 개의 파우치 장식은 실

용성과 장식성을 동시에 나타내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그림 23〉은 어깨부터 연결되어 가슴과 허리에 맨 더블 벨트로 재킷과 바지 옆선까지 연결되어 의복 자체의 디자인 요소로 이용됨과 동시에 의복과 일체화되는 이미지를 준다.

이와 같이 벨트에 있어서 화려한 색상과 디자인, 부분 장식이나 표면 장식, 다양한 질감의 소재 사용 등이 장식성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복 자체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벨트의 주소재인 가죽의 다양한 가공법과 색상, 그리고 화려한 버클 장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의 효과를 나타냈다.

3. 연출의 다양성

우리들 모두 패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옷을 입는다고보다는 패션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집단 속에서 유행하는 복식에 대한 습관이나 스타일을 말하는 패션은 '만드는 것, 행위, 동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Factio'에서 유래한 것으로 같은 사물을 동시적,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수많은 개별 취향의 총화인 대중적 취향이다(김민자, 최현숙, 이현주, 2001). 이미 오래 전부터 의상과 장신구를 포함하여 머리 스타일, 화장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 및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탈 패션으로서의 개념은 인간의 내·외적인 개성에 알맞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 패션의 정신을 반영하였다(김선영, 2005).

특히 다양한 접촉과 자극에 의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에 있어 색상이나 소재, 아이템, 액세서리 등을 통한 개성 있는 연출 감각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여기에 액세서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도 패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그림 24〉
Comme des
garçons, 2006S/S
(Gap, Vol.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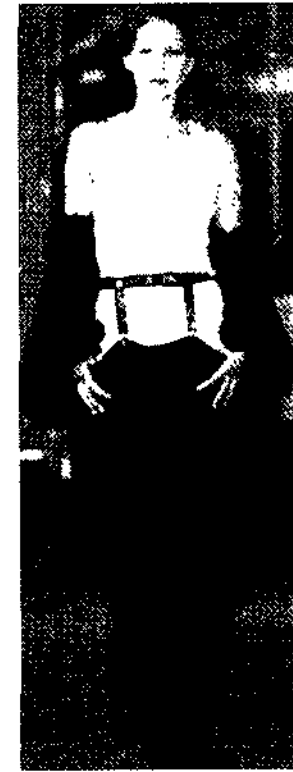
〈그림 25〉
Junya Watanabe,
2004F/W
(Vogue, 2004.5)



〈그림 26〉
Torrente,
2004S/S
(Gap, Vol.11)



〈그림 27〉
Christian Dior,
2001S/S
(Gap, Vol.34)



〈그림 28〉
Benjamin Cho,
2003F/W (Harper's
Bazaar, 2003.5)



〈그림 29〉
Martin Margiela,
2006F/W (Mode
& Mode, No.336)

으로서 의복과 함께 착용자의 이미지조화를 이루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패션에 있어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벨트는 의복을 여미는 실용적인 액세서라기보다는 패션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도구로 옷과 같이 착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착용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연결되어 새로운 패션의 연출 또는 디자인의 전개에 활용되고 있다.

〈그림 24〉는 벨트를 허리가 아닌 가슴 위 부분에서 팔 전체를 감싸 둘러매어 헤드 장식과 함께 공포적인 이미지를 연출했고, 〈그림 25〉는 골반 아래 허벅지 부분에 착용하여 실루엣의 비율을 무시한 기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또 〈그림 26〉은 허리에 두른 폭 넓은 벨트와 이에 연결된 띠들로 무릎 위까지 둘러 맨 형식으로, 〈그림 27〉은 두 줄의 더블 벨트를 어깨에서 가슴을 감는 형식으로 연출하여 드러난 가슴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성적이라기보다는 강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으며, 〈그림 28〉은 허리에 맨 벨트 아래로 끈을 달아 서스펜더 벨트를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로 연출하여 벨트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을 탈피하고 있다. 또 〈그림 29〉는 다양한 색상의 벨트를 조합하여 가죽 재킷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이러한 전환은 디자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존방식의 파괴로 형태의 역설적인 구성을 취해 해체적 연출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정형적인 형태로부터 벗어나 수용자에게 즐거움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시선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유인자극이 된다 하겠다.

이러한 연출들은 20세기 후반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난 탈모더니즘 현상으로 인해 기존의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혼란을 겪게 됨에 따라 기존 개념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대 패션 역시 실용적이기보다는 보여 지

기 위한 것으로 액세서리의 연출 역시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며 불확정한 형태로 추상화, 비정형화, 기형화, 형태가변화 등 다양한 외적 특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성광숙, 이순홍, 2004). 즉 이와 같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표현되는 벨트의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상적인 연출이미지들은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그 대상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 대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관념을 허물게 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 전개로 이어지게 한다.

IV. 결론

변화적이며 한계가 없고 연계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갖는 현대패션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법칙과 미를 나타내는데 벨트와 같은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시하였다. 벨트는 허리를 조이는 기능 외에도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소품으로 색상, 소재, 표면감 뿐 아니라 버클 디자인,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단순화 되어 가는 현대패션에 있어 의복의 악센트로 이용된다. 특히 현대인들의 강한 개성 표출과 여기에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이 더해져서 보다 혁신적인 디자인의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벨트 역시 다양한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연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벨트의 외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연구 결과 그 특성은 여성성의 강조, 장식적 요소로 활용, 연출의 다양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주로 가는 벨트 보다는 폭이 넓은 벨트로 허리를 강

조하거나, 벨트를 매는 위치에 따라 가슴이나 힙 등을 강조하고 또 타이트한 의상이나 시스루 소재의 의상 위에 느슨하게 벨트를 둘러매어 여성 인체를 그대로 내보이는 등 여성인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는 여성성의 강조를 표현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둘째, 벨트의 주 소재인 가죽의 다양한 가공법과 색상, 그리고 화려한 버클 장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장식의 효과를 나타내며, 가죽이 외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이나 무채색의 의상에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의복 자체의 디자인 요소로 이용하여 의상 전체에 활력을 주었다. 셋째, 벨트를 허리 부분이 아닌 팔, 다리, 어깨 등 신체 각 부분에 두르거나 매기, 겹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연출하고, 벨트를 입는다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험적이고 새로운 형식, 이탈, 비정상적인 연출이미지들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벨트의 디자인과 연출은 현대패션 트렌드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는 고정관념의 탈피를 통해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 시대의 미적특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벨트가 갖는 실용적인 목적이외에 상징적이고 장식적인 측면과 연출의 개성적 표현은 이 시대의 새로움에 대한 욕구의 표현이자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유행을 주도하는 새롭고 강력한 트렌드가 사라진 현대 패션을 지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취향과 문화, 그리고 개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 패션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타인과 다른 독창적이고 미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패션디자인에 있어 벨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전개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의상뿐만 아니라 기타 액세서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 창출이 전개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물자료가 아닌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벨트의 소재나 색상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 참고문헌

- 고현진, 김민자(2004). 복식에 표현된 미적 개념으로서의 엘레강스. *복식*, 54(5), 95-108.
- 김민자, 최현숙, 이현주(2001). 서양신발의 사적 고찰과 미적 가치1. *복식*, 51(5), 157-173.
- 김선영(2005). 머프의 사적고찰과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513-525.
- 김소영(1998). 의상디자인에 활용된 벨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 양숙희(2002).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복식*, 52(7), 139-154.
- 김영선(1982). 바로크시대 남녀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인, 강죽형, 김지선, 김지영, 김혜수, 박연주, 이민정, 한소원(2002).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교문사.
- 라사라교육개발원(1992). *복식사전*. 서울: 라사라교육개발원.
- 라사라패션정보(2000). *액세서리와 코디네이트*. 서울: 라사라교육개발원.
- 서동륜(1980). 벨트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광숙, 이순홍(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Ⅱ. *복식*, 54(7), 151-164.
- 신효정(2004). *패션코디*. 서울: 시공사
- 여풍당당 알파 걸을 잡아라(2007. 5. 1). *조선일보*, B3.
- 오희선(1997).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 이경손, 김희섭(1998). *의생활과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 이현숙, 이정숙(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신정
- 정홍숙(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진경옥(2004). *그녀들은 왜 옷을 입는가*. 서울: 교학연구사.
- 채선미(2006). 한지로 제작된 남성셔츠의 미적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4(11), 171-178.
- James, L., 정인희 역(2005). *서양패션의 역사*. 서울: 시공아트.
- Valerie, M., Amy, H., 김정은 역(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아트.
- <http://www.daum.net/dic100>.

(2007년 6월 4일 접수, 2007년 8월 10일 채택)